

지역연구 제32권 제2호 2016년 6월 30일

Journal of the KRSA

vol.32, no.2, 2016 pp.15-29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 및 특성 분석*

이다예** · 이희연***

Regional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Suburban Rural Areas in the Capital Region for Promoting Area-specific Policies*

Da Ye Lee**, Hee Yeon Lee***

국문요약 : 수도권 근교농촌은 서울 및 대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변화하고 있다. 전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따른 고급 전원주택단지로 변화하거나 도시에서 밀려난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등 일반농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근교농촌의 기능적 변화와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근교농촌의 다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읍·면을 단위로 하여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수도권 근교농촌은 전원·농촌관광형, 침상도시형, 농·공 혼재형, 일반농촌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근교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근교농촌, 군집분석, 유형화, 맞춤형 정책

* 서본 논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차년도)」협동연구로 수행된 “대도시 근교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의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selcia1108@snu.ac.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교신저자, lechyn@snu.ac.kr)

Abstract : Suburbs rural areas in the Capital region have been diversified by the influence of the Seoul and large cities for the last 10 year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suburban rural areas and to analyze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in order to propose more area-specific policy approach to suburban rural areas in the Capital region. Using the cluster analysis method, the suburban rural areas in the Capital region have been classified into four types; garden villages in rural areas, urbanization areas, agricultural-industrial mixed use areas, general rural area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four types of suburban rural areas are much differentiated one another in terms of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local dynamics and problems. In order to suburban rural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apital region, the policy efforts should be address the area-specific problems and policy demand for each type of suburban rural areas.

Key Words : Suburban rural area, Cluster analysis, Classification, Area-specific policy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이루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이용및 계획에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수의 추가적인 토지이용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특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고자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농촌의 고유한 자원 활용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근교농촌은 서울과의 양호한 접근성과 토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 잠재성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매우 동태적이며 복합적인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수도권 근교농촌의 경우 농지 및 산림의 감소, 무분별한 토지전용과 소규모 분산 개발을 통한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축사시설 등의 증가로 농촌다운 경관을 해치고 있다. 서로 다른 용도 간에 토지이용 상충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 한 가운데 들어선 공장들과 농지 위에 세워진 축사들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지 못해 소음과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또

한 전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일부 근교농촌으로 이주하면서 마을 내에 외지인들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근교농촌의 토지는 농업 생산을 위한 농지로서만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주거, 산업, 휴양, 공공시설 등 비농업활동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교농촌 토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의 소득 향상을 위해 도시민의 어메니티를 충족시켜주는 수려한 자연·위락경관용 토지의 가치와 수요는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도권 근교농촌의 농업적 토지가 도시용 토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측면에서 수도권 근교농촌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 근교농촌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근교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교농촌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맞춤형 농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도권 근교농촌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유형 구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교농촌의 특성들을 반영한 정책 수립도 부진한 상황이다. 농촌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농촌을 농업 생산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농촌의 과소화와

노동력 부족, 농촌사회의 빈곤과 낙후, 농촌 공동체의 와해 등과 같은 전형적인 농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들도 농촌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다. 최근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의 6차 산업¹⁾ 활성화 등 농촌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다변화되는 근교농촌의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촌을 유형화한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전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군 단위에서 분석하고 있어, 해당 군 내에서 나타나는 이질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근교농촌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실질적 생활권 단위인 읍·면 단위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해당 군 내에서도 읍·면 별로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맞춤형 농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읍·면을 대상으로 한 지역 유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수도권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읍·면 수준에서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근교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속한 행정구역 상 152개 읍·면(동을 제외함)을 수도권 근교농촌으로 정의하였다(그림 1 참조).²⁾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 및 특성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읍·면 단위에서의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근교농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 시점은 2000-10년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0, 2010년 시점의 집계구 자료(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농업총조사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근교농촌의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과 2010년 각 시·군별 통계연보의 지목별(전, 답, 대지, 공장용지 등) 면적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군청의 도움을 통해 읍·면별



〈그림 1〉 수도권의 근교농촌 대상지역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2001-13년 매년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읍·면별로 30-50대 연령층의 유입인구수를 누계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토대로 하여 군집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근교농촌을 유형화하였다. 더 나아가 근교농촌의 대표적 유형으로 나타난 마을(리) 두 곳을 답사하였으며, 2015년 10월 5-15일에 걸쳐서 이장과 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일반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대도시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주로 특정 사례마을을 선정하여 심층 설문조사를 통하여 근교농촌의 특성 및 변화 양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김태현, 2001; 박진도, 2010; 정명채 외, 2001). 김태현(2001)은 청원군 옥산면을 대상으로 하여 5년간 농촌사회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박진도(2010)는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를 사례 마을로 선정하여 20년 간 근교농촌 마을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근교농촌 마을은 일반농촌 마을에 비해 인구 유입이 많고, 고령화 진행이 느리며, 농업보다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이 다각화 되어 감을 밝혔다. 한편 대도시 근교농촌의 경관 변화를 관찰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손용훈 외, 2014; 장성준, 2010; 조영재 외, 2010; 진정 · 신범식, 2000). 진정 · 신범식(2000)은 소규모 공장들이 근교농촌마을에 입주하면서 마을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용인시를 대상으로 농촌마을의 경관변화를 관찰한 장성준(2010)과 아산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영재 외(2010)는 기반시설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주거와 상업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아파트단지 및 공장이 난립하면서 농촌 경관의 혼란과 주민 갈등 등 마을 내에 사회적 · 물리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대도시 근교농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귀농귀촌 현상을 연구한 박시현 · 최용욱(2014), 성주인 외(2012), 송미령 외(2015)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현상이 근교농촌의 인구와 전원주택 증가 등 근교농촌의 사회 · 경제 · 물리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도시로의 통근과 1가구 2주택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농촌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비교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박시현 외, 2001; 성주인 · 송미령, 2003; 신호철 외, 1993; 이정환, 1987; 최양부, 1985). 최양부(1985)는 시 · 군을 공간단위로 하여 중심도시의 인구, 인구증가율, 경지율을 고려하여 농촌을 대도시근교형, 일반농촌형, 특수농촌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정환(1987)도 139개 군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농가, 토지이용, 광공업, 공공서비스 수준 등 5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어촌형, 서남해안어촌형 등 8개 유형으로 농촌을 유형화하였다. 한편 성주인 · 송미령(2003)은 165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인구증감률, 통근인구비, 산업별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 겸업농가 비율, 1·2·3차 산업비율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요인 점수에 따라 농촌을 비농업

강세형, 자족성 우세형, 대도시 통합형, 일반농촌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농촌지역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주로 시 · 군을 공간단위로 하여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그 결과 근교농촌은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분석 단위가 군이기 때문에 유형화를 위한 지표들이 읍 · 면 단위에서 나타나는 보다 세부적인 현상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근교농촌은 일반농촌이나 다른 비수도권 근교농촌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근교농촌 내에서도 이질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읍 · 면 단위에서 수도권 근교농촌만을 대상으로 지역 유형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

1) 유형 구분을 위한 지표 설정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근교농촌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근교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잘 반영해줄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촌의 유형구분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주로 인구 및 가구, 농가, 토지이용,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예) 인구규모, 인구증가율, 전업농가비율, 경지비율, 농업 · 공업 ·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만으로는 수도권 근교농촌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참고하되, 진정 · 신범식(2000), 조영재 외(2010), 박시현 · 최용욱(2014), 송미령 외(2015) 등에서 언급되었던 서울의 광역화에 따른 근교농촌 내 주거단지 조성, 공장 건설, 귀농귀촌 및 여가 · 관광활동 증가와 같은 특성들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도권 근교농촌의 변화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들의 수집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즉, 읍 · 면 수준에서의 가용한 데이터를 최대

〈표 1〉 근교농촌 유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선정된 19개 변수들

구분	변수
농업 특성	농가 비율
	친환경 농가 비율
	관광사업 농가 비율
주택 특성	단독주택 비율
	아파트 비율
	단독주택 변화량
산업 특성	아파트 변화량
	제조업 종사자 비율
	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율
	기타관광숙박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종사자 변화량
토지이용 특성	도소매업 종사자 변화량
	전 비율
	답 비율
	공장용지 비율
	대지 변화량
인구전입 특성	공장용지 변화량
	인구증가율
	30-50대 누적 전입자 비율

한 활용하여 지난 10년간(2000-10년)의 변화와 현재 시점(2010년)의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근교농촌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내주는 변수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먼저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 비중 및 농업활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들, 주택 부문에서는 주택유형 변화 추세 및 현재 주택유형을 보여주는 변수들, 산업 부문에서는 지난 10년간 산업구조 변화와 현재의 산업구조를 보여주는 변수들이 선정되었다. 또한토지이용 부문에는 토지이용 변화를 보여주는 지목별 면적 현황과 변화량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포함되었고, 인구전입 부문에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 유입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농업 부문의 경우 농가 및 농업 활동의 변화는 산업 및 토지이용 부문의 변수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변화량 변수들은 선정하지 않았다.³⁾ 그러나 이렇게

1차적으로 선정된 19개의 변수들 중 일부는 서로 상관이 매우 높아서 중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시행하고 각 변수들의 공간분포도를 구축하여 변수들 간에 상관이 높고 공간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복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5개 영역의 15개 변수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먼저 농업 부문에는 농가비율, 친환경 농가비율, 관광사업 농가비율의 세 가지 변수가 고려되었다. 여기서 관광사업 농가비율은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과 우수한 자연환경 이점 때문에 일부 근교농촌 마을에서 관광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주택 부문에는 단독주택 비율과 아파트 비율, 단독주택 변화량이 포함되었다. 아파트 비율은 신규주택 공급을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단독주택 변화량은 귀농귀촌에 따른 전원주택 증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일반농촌이라면 단독주택 비율은 높으나 변화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 산업 부문에는 산업구조 특성을 보여주는 제조업 종사자 비율과 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과 도소매업 종사자 변화량을 고려하였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근교농촌의 제조업 공장 혼재 수준을 나타내며, 제조업 종사자 변화량은 가장 급격하게 산업구조 변화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율은 수도권 근교의 농촌관광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하였고, 도소매업 종사자 변화량은 인구 및 제조업의 증가에 따른 부차적인 서비스업종으로 고려되어 변수로 선정되었다. 토지이용 부문에는 현재의 농업활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전·답 비율, 공장의 유입 수준을 보여주는 공장용지 비율과 공장용지 변화량 변수가 고려되었다. 인구전입 부문에서는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인한 30-50대 젊은 연령층 인구전입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도의 전입자수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2001-13년)의 전입가구수를 누적한 후, 이를 상대화하기 위하여 2010년 가구 수로 나눈 지표를 누적 전입자 비율로 활용하였다.

〈표 2〉 수도권 근교농촌 유형화를 위해 최종 사용된 변수들

구분	변수	단위	도시	자료 출처
농업 특성	농가 비율	%	농가수 / 총농가수	농림어업총조사
	친환경 농가 비율	%	친환경작물[재배 농가수 / 총농가수	농림어업총조사
	관광사업 농가 비율	%	관광사업 운영 농가수 / 총농가수	농림어업총조사
주택 특성	단독주택 비율	%	단독주택호수 / 총주택수	인구주택총조사
	아파트 비율	%	아파트호수 / 총주택수	인구주택총조사
	단독주택 변화량	호	2000~10년 단독주택 호수 변화	인구주택총조사
산업 특성	제조업 종사자 비율	%	제조업 종사자수 / 총종사자수	사업체총조사
	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율	%	음식숙박업 종사자수 / 총종사자수	사업체총조사
	제조업 종사자 변화량	인	2000~10년 제조업 종사자수 변화	사업체총조사
	도소매업 종사자 변화량	인	2000~10년 도소매업 종사자수 변화	사업체총조사
토지 이용 특성	전 비율	%	지목 상 전 면적 / 총면적	시군별 통계연보
	답 비율	%	지목 상 답 면적 / 총면적	시군별 통계연보
	공장용지 비율	%	지목 상 공장용지 면적 / 총면적	시군별 통계연보
	공장용지 변화량	m ²	2000~10년 공장용지 면적 변화	시군별 통계연보
인구 특성	30-50대 누적 전입자 비율	%	2001~13년 누적 전입가구수 / 2010년 가구수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

*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변화량은 2000-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 기타관광숙박시설에는 산장, 민박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및 캠핑장 등의 숙박시설이 포함됨

2) 근교농촌의 유형화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군집분석 방법의 경우 산출된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군집화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 실제 지역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군집분석 결과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사도가 가장 높은 개체들을 찾아 연속적으로 유사 사례들을 묶어나가는 계층적 군집 방법을 적용하였고, 계층적 군집방법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Ward's 방법을 이용하였다. Ward's 방법은 각 군집의 오차분산지수(ESS) 총합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사한 사례를 묶어나가면서 군집을 구분한다. ESS의 총합인 E_m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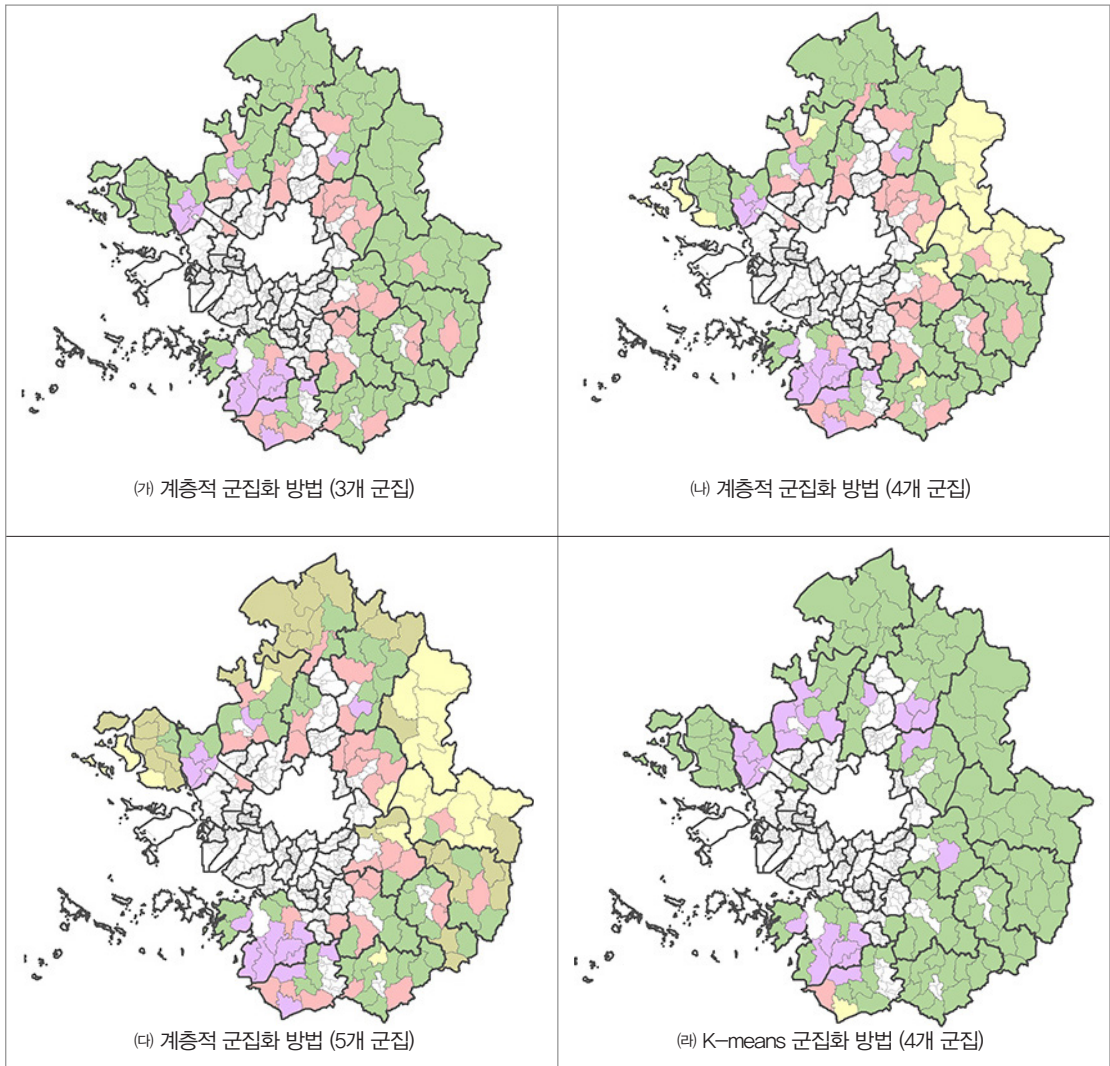
$$E_m = \sum_{l=1}^{n_m} \sum_{k=1}^b (x_{ml,k} - \bar{x}_{m,k})^2$$

$x_{ml,k}$: m 번 군집 l 번 대상체의 k 번 변수 값

$\bar{x}_{m,k}$: k 번 변수의 m 번 군집 평균

유사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군집 수를 보면 3-5개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먼저 3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된 결과를 보면 전체의 68.4%에 해당하는 104개 읍·면이 하나의 유형에 속하며, 서울과 인접한 33개(21.7%) 읍·면이 2번째 유형으로 묶이고, 경기 남부와 북부에 집중된 15개(9.9%) 읍·면이 3번째 유형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그림 2-가). 한편 4개 유형으로 구분된 결과를 보면 수도권 남북 외곽에 위치한 83개(54.6%) 읍·면, 서울 인근에 분포하는 33개(21.7%) 읍·면, 경기 동부의 21개(13.8%) 읍·면, 경기 남부에 집중된 15개(9.9%) 읍·면이 각각의 군집을 이루고 있다(그림 2-나). 또한 5개 유형으로 구분된 결과를 보면 4개 유형의 군집 결과와 유사하지만, 83개로 묶였던 경기 외곽의 읍·면 가운데 51개(33.6%)와 32개(21.1%) 읍·면이 각각 분리되어 다른 군집으로 묶이고 있다(그림 2-다).

이렇게 3, 4, 5개 유형으로 군집된 결과를 비교해 보



〈그림 2〉 군집화 방법에 따른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 결과 비교

면, 3개 유형의 군집결과는 서울에 인접한 소수 읍·면을 제외한 다수의 읍·면을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수도권 근교농촌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개 유형의 군집 결과는 각 유형에 속하는 읍·면 수가 비교적 균등하게 구분되었지만, 유형의 수가 많아 각 유형별 군집특성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에, 4개 유형으로 구분된 결과를 보면 비교적 유형별 군집패턴이 쉽게 인식되며 수도권 근교농촌의 이질적 특성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군집 수를 4개로 정하고

비계층적 방법인 K 평균(K-means) 군집 방법에 따라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K평균 군집 방법은 각 개체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하여 군집을 형성해나가는 방법이다. 초기에 K개의 중심점이 주어지면 각 개체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속한 군집으로 할당한 후 새로운 군집의 중심점을 계산하게 되고, 관측치의 할당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를 반복하여 군집을 형성해 나간다. K 평균 군집 방법에서는 군집 수 K 값에 따라 군집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군집 수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단 군집 수가 결정되면 군집 내 행렬 W 와 군집 간 행렬 B 가 구축된

다. 이 때, W 와 B 의 관계 속에서 전체 행렬 T 가 형성된다.

$$W = \sum_{i=1}^g \sum_{j=1}^{N_i} (X_{ij} - \bar{X}_i)(X_{ij} - \bar{X}_i)'$$

$$B = \sum_{i=1}^g N_i (\bar{X}_i - \bar{X})(\bar{X}_i - \bar{X})'$$

$$T = \sum_{i=1}^g \sum_{j=1}^{N_i} (X_{ij} - \bar{X})(\bar{X}_i - \bar{X})' = W + B$$

- X_{ij} : i 번째 군집, j 번째 개체 값인 p 차원 벡터
- \bar{X}_i : i 번째 군집의 p 차원 평균 벡터
- \bar{X} : 전체 자료의 p 차원 평균 벡터
- g : 군집 수, N_i : i 번째 군집의 관측 개체 수

군집을 형성하는 기준은 군집 내 행렬에 비해서 군집 간 행렬의 흠어짐이 커야한다는 것이다. 즉, $tr(W)$ 를 최소화하는 군집을 추출하게 된다.

$$tr(W) = \sum_{i=1}^g tr(W_i) = \sum_{i=1}^g \sum_{j=1}^{N_i} (X_{ij} - \bar{X}_i)'(X_{ij} - \bar{X}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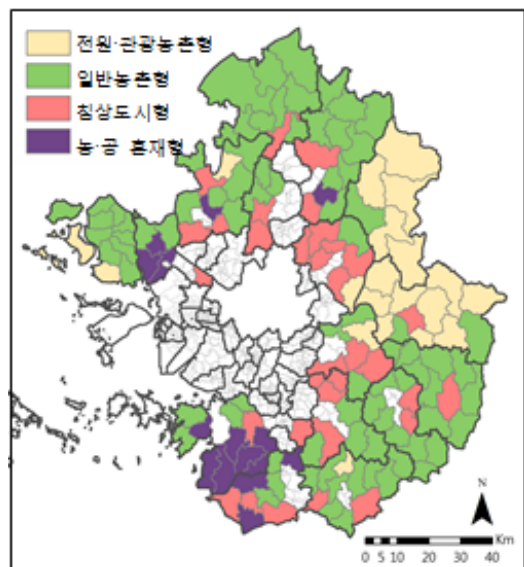
K 평균 군집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와는 매우 다르게 산출되었다(그림 2-라 참조). 특히 2개 유형에는 1개 지역만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K 평균 군집 방법을 활용한 유형 구분이 적절치 못함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근교농촌을 계층적 군집 방법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4. 근교농촌의 유형별 특성 비교

15개 변수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도권 근교농촌은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를 지도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각 유형별 특성들은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출된 변수들의 평균 값 비교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근교농촌을 유형별로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군집 1을 보면 농가 비율이 높고, 단독주택 증가가 두드러지며, 음식숙박업종사

자 비율과 친환경작물재배농가 및 관광사업농가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군집 1은 '전원·농촌관광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군집 1유형은 경기도 가평군과 양평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분포되어 있다. 군집 1에 속한 지역은 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자연환경이 쾌적하여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양호한 환경입지로 인해 농촌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역들이다. 군집 2를 보면 아파트 비율이 62.7%로 가장 높고, 10년간 도소매업 종사자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30-50대 전입률이 높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군집 2는 주로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화되어가는 '침상도시형'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군집 2에 속한 지역들은 대부분 서울에 인접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파주시 등 행정동 주변에 분포되어 있으며, 향후 동(洞)으로 승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군집 3을 보면 지난 10년간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도 73.4%로 매우 높으며, 지목 상 공장용지 비율도 높다. 그러나 전답 면적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군집 3은 기존 농촌에 다수의 공장들이 입주하여 농업과 공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농·공 혼재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등이 군



<그림 3>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

〈표 3〉 수도권 근교농촌의 군집별 특성 비교

변수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농가 비율(%)	34.7	11.6	8.6	5.2	26.4	13.0	37.6	15.8
친환경농가 비율(%)	17.9	7.8	2.5	2.8	1.4	1.7	2.4	2.9
관광사업농가 비율(%)	1.8	1.8	0.3	0.3	0.2	0.2	0.5	0.6
단독주택 비율(%)	81.6	19.0	21.7	13.0	55.9	22.9	79.3	16.3
아파트 비율(%)	5.6	10.0	62.7	17.3	24.1	25.9	8.7	12.3
단독주택 변화량(호)	132.6	165.9	-63.9	323.5	-125.2	196.3	4.6	125.7
제조업종사자 비율(%)	9.1	11.3	34.0	18.8	73.4	17.8	35.7	23.1
음식숙박업종사자 비율(%)	31.4	16.4	11.4	6.2	5.6	7.3	13.2	11.0
제조업종사자 변화량(명)	34.6	123.3	1,205.2	2,159.1	6,746.2	3,297.5	551.8	839.7
도소매업종사자 변화량(명)	17.5	64.2	726.1	843.5	545.2	495.0	84.0	183.3
전 비율(%)	6.2	2.1	9.9	4.5	11.5	2.5	10.7	3.9
답 비율(%)	10.1	8.1	16.9	11.7	28.0	5.9	18.3	10.9
공장용지 비율(%)	0.1	0.2	1.8	1.4	6.8	1.8	1.1	1.2
공장용지 변화량(1,000㎡)	28.98	60.32	313.15	759.84	1,924.40	1,224.13	267.82	292.08
30-50대 누적 전입자 비율(%)	193.6	60.3	251.6	81.2	282.3	79.4	187.1	62.8
해당 읍면 수	21		33		15		83	
군집명	전원·농촌관광형		침상도시형		농·공 혼재형		일반농촌형	

〈표 4〉 수도권 근교농촌의 군집별 특성 비교

구분	군집 1 전원·농촌관광형	군집 2 침상도시형	군집 3 농·공 혼재형	군집 4 일반농촌형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의 증가 • 관광 관련 산업 비중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발한 택지개발 • 30-50대 전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공장의 급격한 증가 • 농업과 공업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활동 중심의 전형적인 농촌
공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이 우수한 경기도 서북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인접 • 행정동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여건이 좋은 경기도 남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외곽 지역
주요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평군 가평읍 양평군 서종면 파주시 파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주시 별내면 용인시 모현면 파주시 교하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천시 가산면 평택시 진위면 화성시 장안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주군 가남면 연천군 연천읍 이천시 장호원읍

집 3에 속하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의 평택시와 화성시의 경우 평택항을 배후로 대규모 공업단지가 입지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다수의 공장들이 밀집하고 있다.

군집 4를 보면 농가 비율이 가장 높고, 전답 비율과 단독주택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농촌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군집 4에 속하는 지역들은 경기 남부

와 북부 외곽에 분포하며, 상대적으로 서울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에 대한 수요가 적어 비교적 전형적인 농촌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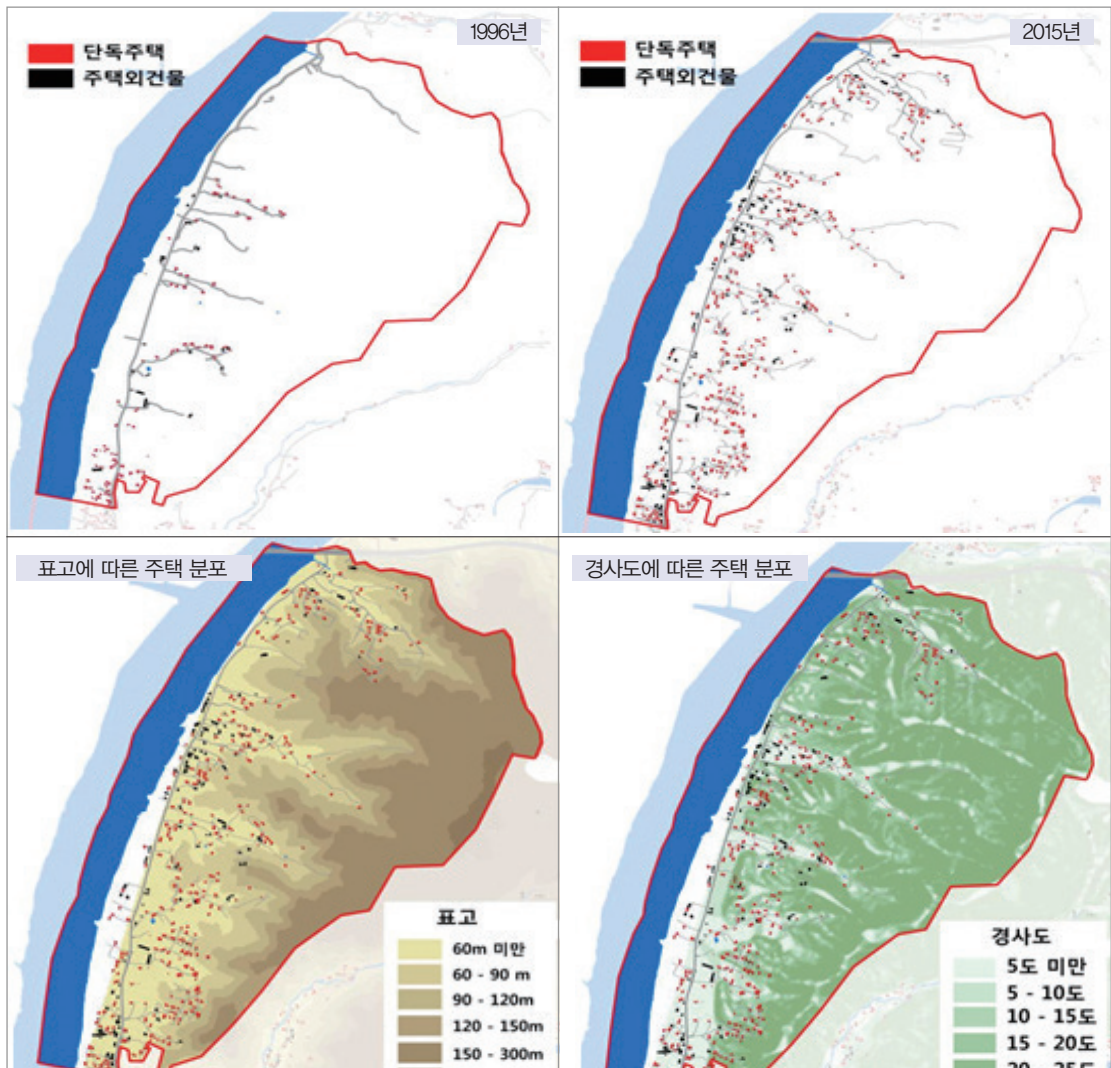
5. 지역맞춤형 근교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수도권 근교농촌은 일반농촌에 비해 변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근

교농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교농촌의 독특한 특성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교농촌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침상도시형은 향후 도시(洞)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농촌형은 근교농촌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근교농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유형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는 전원·관광농촌형과 농·공 혼

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원·농촌관광형에 속하는 지역들은 서울 및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좋고,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는 이점 때문에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이 증가함에 따라 전원·관광농촌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특히 웰빙, 건강, 여가를 즐기기 위해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거주하기 원하는 장년층의 귀촌 경향이 두드러진다. 더 나아가 이들 지역에서는 근교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통근하거나, 근교농촌에 주택을 마련하고 주말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이



〈그림 4〉 양평군 서종면 문호4리의 전원주택의 성장과 분포

나 휴일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러 오는 도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근교농촌 지역의 농촌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원주민들이 점차 감소하고 기존의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는 등 농촌사회가 변화되어감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전원주택형 마을인 양평군 서종면의 문호 4리를 사례로 보면 2015년 전체 농가 중 약 90%(407가구)가 비농가이다. 또한 귀촌한 120가구 가운데 115가구가 서울에서 전입하였고, 이 중 약 40%는 여전히 서울로 출근하고 있다. 이 마을은 북한강에 면한 자연환경의 이점으로 인해 지가가 평당 150-200만 원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귀촌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농지가 대지로 전용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경사도가 높은 산지도 대지로 전용되어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6-2015년 동안 상당한 수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특히 신규 건설된 전원주택을 보면 점차 경사도가 높은 곳으로 입지하고 있다. 또한 문호 4리의 경우 귀촌인들 가운데에는 생활수준이 높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많다. 이들은 원주민들과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갈등도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문호 4리 마을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설문한 결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 해소 및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며, 마을의 발전에 맞춰 노후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농촌관광형 근교농촌에도 여전히 각 마을 단위로 1촌 1명품, 즉 각 농촌마다 하나의 특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전원주택 증가가 두드러지는 전원·농촌관광형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 장려 정책보다 지역 주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 문제,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 전원주택 건설을 위한 산지와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에 따른 문제가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구 증가에 맞춘 공공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확충과 마을 공동체가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는 방안, 산지 및 농지 전용을 통한 전원주택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도시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정책이 아닌 이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급 측면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한편 농·공 혼재형에 속하는 지역들은 수도권의 도시 내 가용한 공업용지의 부족과 각종 규제 및 토지 이용 경합에서의 비교 열위로 인해 개별 공장들이 농지와 산지에 무분별하게 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준농림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근교농촌 난개발을 야기하였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수도권 근교농촌에는 다수의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 공장이 많이 들어선 농공 혼재형 지역들의 대부분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에 대규모 공단이 입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소규모 공장들의 개별입지로 인해 인근의 농촌 주민들은 환경오염 발생 및 공장 관련 차량 통행에 따른 혼잡 등 다수의 피해들을 겪고 있다. 또한 비계획적인 농지 및 산지 전용을 거쳐 공장이 들어서면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농촌 경관 훼손 및 자연환경 훼손과 같은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농공 혼재형 지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마을인 화성시 장안면 독정 3리를 사례로 보면 전체 농가(190가구) 가운데 110가구는 비농가이다. 독정3리 주변에는 공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100여 개) 공장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5 참조). 독정 3리의 경우 마을 내부로 공장이 침투하여 입주하지는 않았으나 주택이 위치한 마을 주변을 공장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논과 밭으로 이용되던 계획관리지역이 공장용지로 전용되고 있으며, 마을 인근으로 확산된 개별공장은 농촌경관의 훼손, 대기오염 및 소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이며, 금속 가공 및 기계장비 제조업 외에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자동차 관련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의



(그림 5) 화성시 장안면 독정3리 인근의 공장 분포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속가공 및 기계장비 제조업 공장들이 많은데 이는 인근에 대규모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공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주민들의 경우 공장의 입주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공장 입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로 공장입지 및 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때문이며, 공장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인지하는 가장 큰 문제는 독정 3리에 입주하는 공장들이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으며, 공장 관계자들이 마을 및 주민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마을이 피해를 입어도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독정3리의 공장 관계자들은 마을의 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과 공장은 사실상 별개의 커뮤니티로 분리되어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갈등이 발생하여도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을 기대하면서 대응 없이 기다린다고 응답하였다. 독정 3리 주민들은 마을 발전을 위해 공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며, 공장 입주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마을의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농공 혼재형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입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입주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무분별한 공장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을 바로 잡고, 트럭과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혼잡 문제 및 마을 경관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장 배치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래로 다양한 토지계획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근교농촌의 경우 개발차익이 기대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농지 및 산림들이 파편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농지와 산지의 감소는 「농지법」 및 「산지법」의 개정에 따라 점차 전용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농지의 전용이 과거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03-13년 동안 경기도의 지목별 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개발 이후 지가 차익이 높은 전과 답, 임야 면적이 크게 감소한 반면, 대지와 도로, 하천, 공장용지 등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심재현·박유진, 2014). 뿐만 아니라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무단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답과 임야의 경우 토지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간에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가 원상복구가 어렵고 법률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쉽게 전용 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농지법」 개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어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축사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4년 8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의 농지전용은 허가 후 용도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련 규정이 더욱 완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원적 이유는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나도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책만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 제도 상에서 농촌은 도시적 개발 수요에 수동적이고 총량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농촌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농지전용허가제도는 근본적으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지속가능한 근교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농촌 정책에서 중시하였던 농업 생산, 농촌 개발과 같은 문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환경·생태, 공동체, 경제적 형평성, 농촌 경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의 자연 환경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근교농촌은 일반적인 농촌과는 달리 생산 공간(농업)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생활공간이자 도시민을 위한 자연 위락 공간으로 기능하는 복합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근교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를 위해 근교농촌의 두드러진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설정하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근교농촌은 전원·관광농촌형, 침상도시형, 농·공 혼재형, 일반농촌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원·관광농촌형은 단독주택의 변화량이 두드러지며, 친환경작물재배 농가 및 관광사업 농가 비율이 높고, 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자연경관이 좋은 가평군과 양평군 및 강화군 일부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침상도시형은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도소매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며, 30·50대 전업 비율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며,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

시, 용인시 처인구, 파주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이 여기에 속한다. 농·공 혼재형은 제조업 종사자와 공장용지의 증가량 및 비율이 가장 크고, 전과 담의 비율 역시 높게 유지되어 농업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되는 특성을 보이며,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 및 김포시와 포천시의 일부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농촌형은 농가 비율과 단독주택 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며, 연천군, 포천시, 강화군을 비롯하여 경기도 북부 및 동남부의 다수 지역이 이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근교농촌도 유형별로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원·관광농촌형 지역의 경우 전원주택 건설을 위해 산지와 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문제와 귀촌인들과 원주민들 간 갈등 문제 해소,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공 혼재형 지역의 당면 과제는 공장들이 사전에 주민들과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하는 등 공장 관계자들과 마을 주민 간의 소통 부재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 공장 입주로 인한 오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근교농촌의 경우 각 유형별 특성이 다르고, 해소해야 하는 문제도 상이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정책들을 보면, 근교농촌의 유형별 특성은 물론이고 근교농촌의 특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농촌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근교농촌은 일반농촌과는 다른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의 확장에 따른 개발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유형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근교농촌의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근교농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와 일부 사례 분석 결과에 의지하여 근교농촌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려 하였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보다 많은 유형별 사례들을 통해 근교농촌의 변화 양상과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근교농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법과 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특히 농지 및 산지 전용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농촌 정책들 가운데 근교농촌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나 정책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새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제도나 정책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 1) 6차 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무유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농촌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을 농촌으로, ‘동’을 도시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 수도권 근교농촌을 수도권 내 읍·면 지역(용진군 제외)으로 한정하였다.
- 3)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활동의 변화량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농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농가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문제점과, 친환경 농가와 관광사업 농가 수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변화량을 고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함. 또한 농업 활동의 변화는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 서비스업의 변화와 대체적 특성이 있으며, 영농형태 관련 변수들은 일반 농촌의 유형화에 주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는 수도권의 근교농촌을 유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음.

참고문헌

김태현, 2001,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pp.5-40.
 박시현 · 김정호 · 이동필 · 허장 · 성주인 · 이동우, 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농업 · 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토

연구원.
 박시현 · 최용욱, 2014, 『귀농 · 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 ·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진도, 2010,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동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농촌사회』, 20(2), pp.47-80.
 성주인 · 박시현 · 김용렬 · 윤병석 · 남기천, 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 송미령, 2003,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성, 『농촌경제』, 26(2), pp.1-22.
 송미령 · 성주인 · 김정섭 · 심재현, 2015, 『귀농 · 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호철 · 민말순 · 오방일, 1993, 『농촌마을 및 주택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정비유형에 관한 연구』, 안산: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심재현 · 박유진, 2014, 『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 연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과 적용』,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1987, 한국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논집』, 39, pp. 141-159.
 장성준, 2010, 농촌지역의 마을과 주택의 유형과 진화, 『대한건축학회지』, 26(7), pp.63-74.
 정명채 · 오내원 · 최경환 · 박대식 · 이상문, 1995,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제10년차 조사결과 종합보고』,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영재 · 장동호 · 윤진옥 · 박지혜, 2010,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실태 및 계획과제』,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진정 · 신범식, 2000, 도시근교 농촌주택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44, pp.61-70.
 최양부 · 이정환 · 정철모 · 김항자, 1985,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증장기 발전 방향(1/5차년도)』, “대도시 근교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계재신청 2016.02.23
 심사일자 2016.04.29
 게재확정 2016.04.29

주저자: 이다예, 교신저자: 이희연

〈부록 1〉 수도권 근교농촌의 각 유형에 속하는 읍·면

시군구	군집 1 (전원·농촌관광형)	군집 2 (침상도시형)	군집 3 (농·공 혼재형)	군집 4 (일반농촌형)
가평군	가평읍, 북면, 설악면, 청평면, 하면			상면
강화군	삼산면, 서도면, 화도면			강화읍, 교동면, 길상면, 내가면, 불은면, 선원면, 송해면, 양도면, 양사면, 하점면
광주시	퇴촌면	신촌읍, 오포읍, 초월읍		남종면, 도척면, 중부면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면,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남양주시	조안면	별내면, 오남읍, 와부읍, 진건읍, 진접읍, 퇴계원면, 화도읍		수동면
안성시	고삼면	공도읍, 금광면		대덕면, 미양면, 보개면, 삼죽면, 서운면, 양성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
양주시		백석읍, 장흥면		광적면, 남면, 은현면
양평군	강하면, 개군면, 단월면, 서종면, 양서면, 옥천면, 용문면, 지평면, 청운면	양평읍		강상면, 양동면
여주군		여주읍		가남면, 강천면, 금사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산북면, 점동면, 흥천면
연천군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백학면, 신서면, 연천읍, 왕징면, 장남면, 중면, 청산면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이동면, 포곡읍		남사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이천시		대원면, 부발읍		마장면, 모가면, 백사면, 설성면, 신탄면, 율면, 장호원읍, 호법면
파주시	파평면	교하읍, 문산읍, 조리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법원읍, 적성면, 탄현면, 파주읍
평택시		안중읍, 팽성읍, 포승읍	진위면, 청북면, 현덕면	고덕면, 서탄면, 오성면
포천시		소흘읍, 신북면	가산면	관인면, 군내면,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일동면, 창수면, 화현면
화성시		동탄면, 봉담읍	마도면,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